

## 생명의 강을 다시 흐르게 하라!

최 병 성 (목사, 환경운동가)

최근 우리는 100년만의 가뭄과 폭염 그리고 연이어 찾아오는 태풍을 경험했습니다. 그만큼 지구의 기후 이상이 심각하다는 이야기겠지요. 지금 병들어가는 지구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나무와 새와 동물들을 만드시며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보시기에 심히 좋다고 감탄하시던 명품이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19편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라며 창조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던 아름답던 자연이 하나님의 영광은 고사하고 이제 인간의 생존마저 위협하는 심각한 환경오염과 기후이변까지 이른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과 사랑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유전케 하라고 3번(창 6:19-20, 7:3)이나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될 수 있는 작은 방주가 아니라, 하늘을 나는 새와 모든 들짐승들을 각기 쌍쌍이 실을 수 있는 엄청난 크기로 만드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창 1:28)라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정복’과 ‘다스림’이란 ‘보호’와 ‘책임’을 수반하는 것임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다스림이란 ‘사랑’과 ‘섬김’이었습니다. 따라서 자연에 대한 인간의 ‘다스림’이란 그저 인간의 이익을 위한 이용이 아니라, 자연에 대한 돌봄과 섬김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이 잘 보존되도록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연은 그저 인간의 탐욕을 위한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귀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의 사명입니다.

##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파괴한 이명박 장로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시키리라는 기대 속에 기독교인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은 이명박 장로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명박 정부의 지난 5년은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 환경 파괴가 심각했습니다. 입으로는 녹색을 외쳤지만, 녹색을 가장한 생명 파괴가 산과 바다와 강에서 5년 내내 지속되었습니다. 골프장을 개발 할 수 있는 산림 경사 기준을 완화하여 산림을 황폐하게 하고 골프공화국의 기반을 닦아 주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란 이름으로 바다를 죽이는 세계 최대의 조력발전소를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세계는 원자력발전의 위험을 깨닫고 원전 폐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원전이 안전하고 깨끗한 녹색 에너지라며 새로운 원전 건설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선진화를 외치며 세계의 추세와는 거꾸로 가는 청개구리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만약 원전 사고라도 발생하는 날에는 일본에서 보듯 감당해야 할 비용은 상상할 수조차 없고, 작은 국토 면적의 대한민국에선 사람이 살 수조차 없는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원전은 국민의 목숨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건 위험한 도박입니다. 원전은 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너무 늦습니다. 안전하다고 할 때 폐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 대한민국 역사 이래 최대 국토파괴의 재앙인 4대강 사업

이명박 정부의 가장 심각한 창조질서 파괴 재앙은 4대강 사업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가뭄과 홍수를 막고 수질을 개선하며 생태계복원을 위해 4대강 사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을 위해 먼저 언론을 병어리로 만들었습니다. 국토 파괴 재앙인 4대강 사업이 언론의 침묵 속에 강행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이 완공되었습니다. 강의 모래는 다 파먹었고, ‘보’(堡)라 부르는 16개의 거대한 댐이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시작한지 단 2년도 되지 않아 690km가 넘는 4대강 변종 운하를 완성한, 세계 그 어디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세계 유일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22조원이 넘는 4대강 공사의 환경영향평가를 단 4달 만에 졸속으로 해치운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국회 예산심의 없이 사업을 조기 착공한 헌법 54조 위반, 500억 이상 대규모 사업에 반드시 해야 할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국가재정법 제38조 위반, 하천법 상위 계획에 위배된 하천법 위반 등 4대강 사업은 수많은 불법과 편법으로 가득합니다.

‘녹색성장’이라는 가짜 녹색으로 포장된 4대강엔 갈기갈기 찢기고 처절하게 파괴된 생명들의 절규가 흐릅니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 완공을 위해 밤낮 없는 무리한 공사로 얼음물에 빠져 죽고, 무너진 모래더미에 깔려 죽는 등 비명횡사한 24명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피울음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2011년엔 4대강 이포보 공사로 발생한 급류로 인해 훈련 중이던 4명의 군인이 빠져죽었고, 올 8월엔 이 대통령이 살려냈다는 한강 여주보 주변에서 고기 잡던 보트가 여주보 물살에 휩쓸려 2명이 빠져죽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4대강사업은 수많은 생명의 죽음을 부른 망국적 사대강(死大江)사업이었던 것입니다.

**홍수 예방 땡! 가뭄 예방 땡! 수질 개선 땡! 땡땡땡~**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 홍보를 위해 거짓말 가득한 4대강 광고를 쏟아냈습니다. 이는 '홍보'가 아니라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세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4대강 변종 운하에 아무리 장밋빛 칠을 덧입힐지라도 국토 파괴 재앙의 진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4대강 사업이 왜 국토파괴 재앙인지 그 증거들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난 2011년 여름, 100년 동안 굳건히 자리를 지켜오며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칠곡 왜관철교가 무분별한 4대강 준설로 인해 붕괴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2년 전에 4대강 사업으로 강을 준설하고 교량 보호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왜관철교 등의 다리가 붕괴된다고 경고한 바 있었습니다. 왜관철교 붕괴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이 2년 전 4대강 재앙을 경고한 제 글을 기억하며 너무도 정확한 예언에 소름끼친다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놀랄 일이 아닙니다. 4대강 사업은 과학이 아니라 아주 기초적인 상식조차 지키지 않는 잘못된 삽질이었기에, 4대강 사업이 초래할 재앙을 정확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리 붕괴와 취수장 사고를 예견한 제 글을 읽은 언론사 기자들이 다음 재앙은 무엇이나고 물어왔습니다. 이 대통령의 4대강 사업 덕에 다가올 재앙들을 예견하는 것 역시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4대강엔 16개 괴물 댐에 물을 가둔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녹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4대강 녹조라떼'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였습니다. 물은 흐르지 않으면 썩는다는 하늘의 진리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최근 4대강은 이 대통령이 늘 입에 달고 있던 '녹색성장'을 제대로 보여주었습니다. 4대강이 녹색으로 변해가자 전국 상점엔 생수가 동났다는 뉴스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처럼 4대강의 물이 짙은 녹색으로 썩기 시작

하면 국민들은 심각한 물 부족 사태를 겪게 될 것입니다. 4대강 16개 괴물 댐 덕에 유람선이 떠다닐 수 있는 썩은 물은 넘치지만, 국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맑은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맑은 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흐르는 맑은 강물'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4대강 재앙은 썩은 물 부족사태에 그치지 않습니다. 4대강 16개 괴물 댐에 가득 채워놓은 물은 어느 날 거대한 물 폭탄이 되어 국민들에게 고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동안 4대강의 홍수를 막아주던 강변습지를 파괴하고 썩은 물로 가득 채운 4대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쓸어갈 흡혈귀로 변했습니다. 4대강변의 모래 때문에 홍수가 난다더니, 모래가 쌓여있던 높이보다 수m나 더 높게 물을 가득 채워 놓는 앞뒤 다른 짓을 벌였습니다. 4대강 사업은 '홍수 예방'이 아니라, 홍수를 유발하는 '물 폭탄'을 제조한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홍수를 예방한다며 4대강 634km를 준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한민국 총 하천 길이 64,900km의 단 1%도 되지 않습니다. 1% 하천을 파서 나머지 99% 하천 홍수를 예방한다는 것은 하나님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이 대통령의 홍수 예방 주장은 처음부터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지난 6월, 100년만의 가뭄으로 논과 밭이 짹짹 갈라지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에 건설한 16개 대형보는 이미 2011년 10월 완공되어 4대강엔 물이 가득하였습니다. 4대강엔 물이 철철 흘러넘치고 있었지만, 전국의 농토는 바짝바짝 타들어갔습니다. 가뭄을 막는다면 4대강 사업이 아무 쓸모없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가뭄 대책은 농경지가 있는 지역에 저수지 등을 통해 필요한 물을 저장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최고의 해결책입니다. 4대강에 아무리 많은 물을 모아봐야 정작 물이 필요한 지역에 물을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가뭄을 사라지게 한다던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이 완공되었지만, 가뭄에 하늘만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홍수와 가뭄을 막고 수질개선을 한다며 25조원을 강에 쏟아 넣었지만,

가뭄과 녹조에 비오기를 하늘만 바라보고, 홍수가 나면 하늘만 바라보며 비가 그치기를 바라볼 뿐입니다. 4대강 사업이 아무 소용없던 것입니다.

특히 4대강 사업은 수많은 농민들을 길거리로 내쫓은 국가권력의 테러였습니다. 그동안 강변에서 농사짓던 수만 명의 농민들이 수질오염의 주범이란 누명으로 쓰고 하루아침에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장로가 강변 농민들을 쫓아냈지만, 농민들이 땀 흘려 생명을 일구던 그 자리엔 망초만이 가득하고, 수질개선은 고사하고 녹조라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강변엔 녹색천으로 덮은 거대한 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강에서 퍼 올린 모래를 농경지에 쌓아 놓은 것입니다. 4대강엔 오늘도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쫓겨난 농민들의 눈물과 사라진 농토의 신음 소리만이 가득 흐르고 있습니다.

장로 대통령이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나라, 누구나 거짓말임을 다 알고 있는데 그 많은 언론이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침묵하는 나라, 이게 바로 오늘 대한민국의 서글픈 현실입니다. 잘못된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한국교회가 4대강의 진실을 바로 알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파괴한 4대강사업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의 '강'(江)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굽이굽이 산을 휘감고 흐르는 맑은 물, 햇살에 반짝이는 금빛 모래, 쉼 없이 소살거리며 노래하는 여울, 여유로운 몸짓으로 오가는 물고기, 모래펄에 깃든 작은 새들의 청아한 노랫소리, 물을 박차며 뛰어오르는 철새들의 웅장한 비상, 수많은 생명을 품어주는 우거진 버드나무와 바람 따라 춤을 추는 갈대... '강'(江)이란 이 모든 것들의 총합입니다. 이 중 그 어느 하나가 빠진 강은 더 이상 강이라 할 수 없습니다. 강은 4대강 사업처럼 단순히 썩은 물만 가득 모아 놓은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강'의 반대말은 '댐'입니다. 댐은 강의 흐름을 정지시켜 강의 생명을

파괴합니다. 4대강 사업은 흘러야 할 강에 16개의 대형댐을 건설한 ‘생명의 강 죽이기’입니다. 4대강 사업 후에는 더 이상 ‘강(江)’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줄줄이 이어진 ‘댐’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는 흐르는 ‘강(江)’을 원합니다. 강이 ‘흐름’을 잃어버리면 ‘맑음’과 함께 그 안에 갇든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고여 있는 물은 더 이상 강이 아닙니다. 강은 언제나 산을 휘감고 굽이쳐 흐르기에 강입니다. 강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낮고, 이 세상에서 가장 넓은 바다를 향해 달려가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흐르는 것이 강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에 물이 많아야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의 무지에 불과합니다. 진짜 강(江)이란 ‘맑은 물’이 아니라, 얕은 ‘여울’과 깊은 ‘소’가 반복되고 주변에 습지와 모래밭이 있는 ‘다양한 환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양한 환경이 있어야 다양한 생명들이 깃들게 되고 물이 맑아지기 때문입니다.

강의 신비는 여울에 있습니다. 흐르던 물길이 여울에 부딪히며 하얀 포말을 일으키면, 물의 표면적이 넓어지며 공기 중의 산소를 품게 되어 강물이 더욱 맑아지게 됩니다. 이런 까닭에 여울을 일컬어 하늘이 만든 천연 정수기라고 부릅니다. 특히 여울은 물고기들의 산란장입니다. 천연 기념물 으뜸치는 여울이 시작하는 바로 위에 알을 낳고 그 위에 돌을 물어다 산란탕을 쌓습니다. 으뜸치는 여울이 없으면 산란을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맑음으로 수많은 생명을 품어주고, 또 끊임없이 생명을 잉태케 하는 여울은 거룩한 생명의 터전입니다. 그런데 강을 깊이 준설하는 4대강 사업은 모든 여울을 다 파괴하여 썩은 물만 가득한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천연 정수기인 여울이 사라지면 강물은 썩을 수밖에 없고, 터전을 잃은 쉬리, 돌상어, 꾸구리, 으뜸치, 흰수마자 등이 더 이상 4대강에 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대교부 바실리우스는 피조세계를 일컬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합창이요, 즐겁게 이어지는 춤”이라 하였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04편 31절에 “여호와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찌며, 여호와는 자기 행사로 인하

여 즐거워할찌로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자신의 맑음으로 생명을 끊임없이 잉태케 하는 여울은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에 영원히 지속되게 하는 거룩한 성소요, 여울 물소리는 생명의 노랫소리입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생명의 장소인 여울을 파괴하여 더 이상 생명들이 살기 힘든 죽음의 수로로 만들었습니다. 생명의 단절을 부르는 4대강 사업은 하나님 영광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영광의 단절은 곧 죄를 말합니다.

여울을 파괴하여 수로로 만드는 4대강 사업은 물고기만이 아니라 한국을 찾아오는 철새들을 내쫓는 생명파괴의 재앙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이 완성되는 2011년이면 4대강이 철새들의 낙원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낙동강 해평습지와 을숙도 등 이미 철새들의 낙원이었던 4대강이 철새낙원을 만든다던 이 대통령의 4대강 사업 덕에 더 이상 철새들이 찾지 못하는 죽음의 땅이 되었습니다.

철새는 잠수하여 물고기를 잡아먹는 ‘잠수성 오리’와 얇은 곳에서 머리만 물속에 넣어 바닥의 수초뿌리와 갯지렁이 등을 먹고 사는 ‘수면성 오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철새들의 94%가 모래밭과 얇은 곳을 좋아하는 수면성 오리입니다. 천연기념물 제201호 큰고니를 비롯해 천연기념물 제202호인 두루미, 그리고 세계적 멸종위기종이며 천연기념물 제205호인 노랑부리저어새 등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강의 수심이 깊어지면 더 이상 이 땅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자리자리 마다 그곳에 어울리는 생명들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높은 산들은 산양을 위함이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시 104:18)라고 노래했습니다. 이 말씀은 산에 어울리는 생명을, 하늘엔 하늘에 어울리는 생명을, 강물 속엔 굽이굽이 마다 그곳에 어울리는 생명들을 자리하게 하셨다는 말과 같습니다. 강은 인간이 배를 띄우기 위함이 아니요, 그 안에 깃든 물고기들과 철새들의 터전임을 성경이 말한 것입니다.

성경에 강을 막는 4대강 사업을 하지 말라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 에스겔서 47장 9절에 “강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



고,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라며 보를 세워 강의 물길을 막는 4대강 사업이 잘못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이 흘러야 강도 맑아지고 바다도 산다는 것은 놀랍도록 과학적인 근거를 지닌 말씀입니다. 육지의 토양과 유기물이 강을 통해 바다로 흘러들어가야 바다의 물고기들도 건강해지고 강도 맑음을 유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강에 거대한 보를 쌓아 강물의 흐름을 차단하면 유기물이 바다로 흘러들지 못해 바다는 영양실조에 걸리고 강은 썩게 됩니다. 이집트 나일강을 비롯하여 강의 물길을 막음으로써 바다의 물고기 어획량이 80% 이상씩 감소되고 있다고 이미 전 세계의 강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강은 흘러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강의 물길을 막는 4대강 사업은 강과 바다를 죽이며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파괴한 범죄였습니다.

**창조질서 보존을 위해 교회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독일의 이자강을 비롯하여 스위스의 투어강과 미국의 키시미강 등 지금 전 세계는 강을 운하로 만들었던 잘못을 돌이켜 여울과 은빛 모래톱이 살아있는 자연의 강으로 되돌리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전 세계가 잘못이라고 인정한 운하사업을 ‘강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호도하며 심각한 생명과피해를 일삼았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생명의 강을 제자리로 되돌리기 위해 한국교회가 제 역할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신학자 클라우스 베스터만(Claus Westermann)은 “인간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하지만, 인간 삶의 환경에 대해선 전혀 관여하지 않는 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하나님인가? 성경의 첫 쪽이 하늘, 땅, 태양, 달, 별, 풀, 나무, 새, 물고기와 동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신앙고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인정하는 하나님은 단순히 사람만이 아니라 온 피조물에 관심을 갖고 계심을 나타내는 확실한 증거이다. 단지 사람의 하나님으로만 이해되는 하나님은 더 이상 성경의 하나

님이 아니다”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조세계 보존에 관심을 가져야함을 역설하였습니다.

신학자 몰트만은 “현대 문명 가운데서 ‘성화’(聖化)란 무엇보다 생명의 거룩함과 모든 피조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비를 재발견하는 것으로서, 폭력에 의해 생명이 마음대로 조작되고 지구가 파괴되는 것을 막는 일, 곧 인간의 무책임한 파괴로부터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몰트만은 “생명을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의 몸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창조를 회복하기 어렵게 침략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다. 그 결과는 가해자가 스스로를 출교시키는 것과 같다. 허무주의적인 자연파괴는 무신론을 실천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고 수질을 개선한다던 거짓말뿐만 아니라, 강에 깃들어 사는 생명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4대강사업은 하나님 창조질서의 파괴요, 하나님을 부인한 범죄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개발이란 이름으로 각종 환경 파괴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교회는 “교회가 약한 피조물의 고통을 공적 저항을 통해 함께 외쳐야 할 것”이라고 일찍이 외쳤던 신학자 몰트만의 외침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 이 땅의 생명들을 보존하고 유전케 하라던 하나님은 생명의 강을 다시 흐르게 할 또 한 명의 노아를 찾고 계십니다. 심각한 환경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인 지구와 이 땅의 생명들을 지켜야 할 노아의 사명을 받고 있습니다. ❶